

지역 소식통

완주군, '농기계 사전예약 임대' 7월부터 시행

완주군은 지난 5. 6월 시범적으로 이양기에 한해 사전예약을 받았던 것을 내달부터는 전체 농기계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완주군에는 고산, 삼례, 구이분소 3개소에 약 700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기존에는 당일 농기계 임대 신청으로 이뤄졌지만 체계적인 임대를 위해 이번에 사전예약제를 도입했다.

다만, 군에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당일 임대도 가능하다. 농업의 특성상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전예약이 힘든 농업인을 고려한 것. 사전예약은 농업인이 전화나 방문 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예약 가능기간은 사용 일주일 전부터 사용 전날까지이다.

예약한 임대농기계는 사용 전 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또는 당일 8시부터 9시까지 출고해 사용하고, 지정된 입고시간까지 반납하면 된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임대 및 예약 문의는 고산분소(290-3306), 삼례분소(290-3270), 구이분소(290-3308)로 하면 된다. 한편, 농기계 임대는 농업인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 4000여 명이 임대 혜택을 봤다. /원주=이종복 기자

동김제농협,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

김제시는 금구면 소재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상생하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인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본 사업은 지역 중소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해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김제시와 동김제농협이 함께 공모하여 선정되었다.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는 4,249㎡부지에 지상2층, 연면적 2,035㎡규모로 오는 12월 개장을 목표로 건립되며, 로컬푸드 직매장 380㎡를 비롯하여 지역민과 생산농가를 위한 다목적 교육장, 소비자를 위한 체험공간이 함께 마련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마을 공동체, 또 1등

화산 수락마을 · 경천 오복마을...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최우수상으로 전국대회 출

완주군의 마을공동체가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완주군은 최근 전북도가 주최한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화산면 수락마을, 경천면 오복마을이 최우수상을 거머쥐었다고 25일 밝혔다.

완주군의 활약은 엄청나다. 지난해에는 구이면 안덕마을과 경천면 요동마을이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차지했다. 2018년도에는 소양면 오성마을이 최우수상을 차지, 전북 대표로 나가 장관상까지 수상하기도 했다.

이번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한 화산면 수락마을, 경천면 오복마을 역시 전북을 대표해 농식품부 주관 행사에 참여한다.

수락마을은 이번 콘테스트에 '모두 다 예술, 수락에서 만나'라는 비

전을 가지고 농촌빈집 및 유희시설 활용 우수사례 분야에 참여했다.

이 마을은 2019년부터 마을 주민들이 직접 작지만 특색있는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농촌빈집을 활용한 빨래터를 조성하여 농촌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복마을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오복마을 공동체'라는 비전을 가지고 소득·체험 분야에 참여했다.

풍부한 산림 및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오복마을은 한 해 3만명 이상의 방문할 정도로 전국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농촌체험휴양마을이다.

식재료 공급부터 사무장 채용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 주민 모두가 균등하게 출자하는 방식으로

높은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지난해만 약 5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이번 콘테스트에서 화산 수락마을과 경천 오복마을은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각각 200만원, 100만원의 상금 수상과 다가오는 8월에 농식품부 주관으로 개최되는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 전북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지난 2010년부터 주민과 함께한 완주군의 마을사업이 양적 성장 뿐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까지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것을 이번 콘테스트를 통해 확인했다"며 "완주군의 마을공동체 정책이 완주만의 사회적경제 정책인 소셜굿즈의 밑거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완주군은 완주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아름다운 건축로 만들기 위해 돌입,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폐수처리장이 자연학습장으로"

완주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주민친화시설로 새 단장

기피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주민친화시설로 거듭났다.

완주군은 완주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아름다운 건축로 만들기 위해 돌입,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올해 초부터 약 2억원을 들여 주민들과 학생들을 위한 자연학습장 조성사업에 돌입했다. 군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자연 학습장이 될 수 있도록 홍보관을 비롯해 생물반응조, 최종 침전조, 열

처리시설, 방류동까지 택을 설치해 방문객들이 폐수처리의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생태연못에 잉어를 방류해 처리된 폐수가 얼마나 깨끗해졌는지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꽃길과 벽화작업을 통해 방문객들이 더욱 친근하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건축으로 구간에 해바라기, 금계국, 소나무 등 다양한 계절수목을 식재했으며, 현재는 추가적인 꽃길 조성과 벽화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원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2019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마무리

공공예금 이자수입 50억원 확보

재정안정화기금에 500억원 적립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된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최종 승인받았다.

2019회계연도 김제시 예산은 1조 1,219억원이며, 세입은 1조 1,470억원, 세출은 9,060억원으로 지난 회계연도보다 예산, 세입, 세출액이 모두 증가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지난 회계연도보다 223억원(22.1%) 감소했다.

김제시 결산은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2), 기타특별회계(6), 기금(13)에 대하여 주민이 알기쉬운 결산보고서,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으로 구성된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22종으로 작성됐다.

작성된 결산서는 예산집행의 적법성, 공정성, 능률성, 합리성에 주안을 두고 지난 4월 10일~29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명한 김제시의회 의원 정형철 대표위원 외 2명의 위원들이 감사를 실시했고, 결산감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5월 28일에 의회에 승인안을 제출해 제1차 정례회에서 최종 승인됐다.

결산감사 의견서에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이월액 관리 등 8건의 개선사항과 적극행정으로 50억원 이자수입 획기적 확보 등 3건의 우수사례가 제안됐으며, 이중 특히 눈여겨 볼만한 우수사례를 보면, 회계과에서 추진한 2019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 50억원 확보를 꼽을 수 있으며, 이는 전년보다 63%인 19억원이 증가한 역대 최고의 성과이다.

이는 자금관리 실무담당자의 전략적인 노력에 의한 것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 자금통합관리와 세계(歲計)현금의 전용제도를 활용하여 자금유동성 문제를 창의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이룬 성과이다.

다른 우수사례로는 2019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법인카드 적극 이용 활성화로 6,300만원의 세외수입 확보한 것을 들 수 있으며, 이는 그간 고지서로 납부하던 4대 보험료를 법인카드 납부하여 전년 대비 5,000만원이 증가한 세외수입 증대 효과를 거뒀다.

또한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500억원을 적립하고,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여 보다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해진 것도 우수사례로 제안됐다.

결산감사 위원들은 적극적이고 모범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우수공무원에게 인사상, 재정상 인센티브를 강구할 것을 건의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14년만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김제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으로 읍·면지역은 모든토지와 건

물, 동지역은 농지(전·답·과수원) 및 임야를 대상으로 하며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시민은 시·읍·면장이 위촉한 5명의 보증인(법무사 1인 포함)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평선학당 공무원시험준비반, 수강생 모집

김제시(시장 박준배)가 지역 청·장년층 취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민선 7기 핵심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평선학당 공무원시험준비반에서 하반기 수강생 16명을 추가로 선발한다고 밝혔다.

선발인원은 A과정(직강 프로그램) 3명, B과정(관리형독서실 프로그램) 3명, C과정(동영상강의 지원 프로그램) 10명으로 총 16명이며, 8월 12일에 예정된 전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필기 합격자 발표에 따른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인원만큼 선발시험 합격자 후순위를 추가해 선발한다.

응시 자격은 공고일 23일 기준 김제시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 또는 시민의 배우자 및 자녀로,

공고일 당해연도 만 18세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다.

7월 25일에 예정된 선발시험은 영어·한국사 각 20문항을 평가하는 공개경쟁 필기시험이며, 최종 합격자는 선발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된다.

응시 희망자는 응시원서를 시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지평선학당 행정실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3월부터 운영 중인 지평선학당 공무원시험준비반은 운영 시작 1년 만에 공무원시험 합격자 11명을 배출하는 쾌거를 거두며 지역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현재 (주)에듀스파 박문근과 위탁 계약을 체결해 운영 중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2020년도 상반기 정년 퇴임식

김제시는 25일 정년퇴직자와 퇴직자 가족, 박준배 김제시장, 운주현 김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상반기 퇴임식을 가졌다.

이번 퇴임하는 공직자는 19명으로, 코로나19 비상상황을 고려하여 관내

음식점에서 의식을 최소화하여 진행하였다

이날 정년 퇴임식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공직자에 대한 공로패 수여와 함께 참석한 배우자에게 감사의 꽃다발을 전달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